

# 리더십 공백 민주당 결론은 “생활정치”

## 정세균 대표 ‘뉴 민주당 플랜’ 제1탄 제시

### “결국 우향우” 논쟁 열린우리계 반발 예고

대선 패배 이후 리더십 공백으로 이렇다할 활로를 찾지 못한 민주당이 ‘달 이념·생활정치’를 전면에 내세워 정국 돌파에 나섰다. 그동안 추진해온 뉴민주당 플랜의 지향점이다.

민주당은 25일 당의 정체성은 진보적으로 하되 정책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추진해 이념에 빠지지 않은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세균 대표와 김효석 민주당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민주당 플랜’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진보성이란 정체성을 중심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는 생활정치를 떠나갈 것”이라며 “뉴민주당 플랜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지향하면서 교육·보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비정규직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로 낮추는 등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분야를 시작으로 일자리·중소기업, 외교·통일·안보, 환경·에너지, 중소기업, 노동, 복지 등 뉴민주당 플랜의 6대 분야별 핵심정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교육정책과 관련, 서로 대립하는 개념인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해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석 원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수월성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 공교육화 ▲학습방법 다양화 및 혁신형 자율학교 확산 ▲교원 확충 및 학급당 정원 25명 실현 ▲반값 등록금 ▲중·고등교육 무상화 ▲무상급식 ▲대학 개혁 등 7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대학개혁과 관련, 학벌사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 국립대학 통

폐합, 서울소재 국립대학의 연구중심 대학 전환 및 학부생 선발 축소,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50개 대학 집중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내달 25일에는 이명박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아 정책위 차원에서 분야별 토론회 등 현 정권 평가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뉴 민주당 플랜은 ‘우향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초안의 골간을 유지하고 있어 주류-비주류의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뉴민주당 교육분야 정책 발표에 앞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 與 공천 재판짜기 민주당 영향은

### 김태호 경남지사 불출마 선언... 호남파장 주목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25일 6·2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지방선거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영남지역 선거판이 제구축되는 것은 물론 여당 전체 선거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재판짜기는 야당의 대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특히 3선 도전이 많은 호남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불출마 선언=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생각으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더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더 이상 도지사직에 출마하지 않

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이가 꽤 되었고 물러날 때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남은 5개월을 5년처럼 생각하고 후진의 정열을 쏟아 여러 현안들을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김 지사가 그동안 도정을 큰 무리 없이 수행해온데다 눈에 띄는 당내 경쟁자가 없다는데다 점에서 도지사 3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중양정치 진출을 위한 교육지책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가 대권 플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

해 3선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영향=김 지사의 불출마는 의외 여부를 떠나 지방선거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핵심부가 전체 판을 다시 짜기 위해 김 지사 불출마를 기뻐했다면 한나라당은 새로운 얼굴들로 영남권의 후보를 교체, 전체 지방선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그 후폭풍은 민주당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정치권을 보고 있다. 여권이 새로운 얼굴로 후보를 교체하며 변화에 주력하는 동안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주무대인 영남에서 개혁공천을 시도할 경우 민주당은 호남에서 맞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는 호남 개혁공천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시장 후보 공교육 정상화·기업 유치

### 전남지사 후보 습지 보전·무안공항 대책

#### 매니페스토 광주·전남본부 지방선거 10대 어젠다 선정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이 직접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 주요 정당과 후보에게 제시하고 나서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정책 선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도 잇따라 정책 자문단을 구성,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정도 정책선거로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0 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26일 오전 광주시 선관위와 전남도 선관위에서 광주·전남·전남도민이 함께 만든 ‘민선 5기 지방선거 10대 어젠다(의제)’를 주요 정당 광주시당 대표들에게 전달한다. 매니페스토 광주본부가 제시한 10대 어젠다는 ▲지역경제활성화 ▲도심 간 균형발전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광주역, 송정리역 통합 역세권 ▲경제거버넌스 구축 ▲지방분권 내실화 ▲아시

아문화전당 건설 관련 문화콘텐츠 육성 ▲공교육 정상화 ▲광주천 지천 복원 ▲광주·전남 공동 경제청 설립 등이다.

매니페스토 전남본부가 선정한 10대 어젠다는 ▲사회적 기업·노인·여성 등 일자리 창출 ▲무로급식 등 저소득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 ▲장애인 복지·편의시설 확충 ▲대안교육시설 확충 ▲문화체험공간 시설 확충 ▲시민사회와 유기적 역할 공유 ▲무안공항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 ▲관광산업 육성 활성화 ▲연안습지 보전 등이다.

이번에 제시된 각 지역별 10대 어젠다는 전국 1천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지역별 92개 어젠다를 수집해 이중 주요도 순서로 72개를 선정해 뒤 우선 순위 10개를 뽑아 시민여론조사·시민 심층토론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 지방선거 핫코너

### 이미경·김민석 공동본부장에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기존 지방선거기획단을 지방선거기획본부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미경 사무총장과 김민석 최고위원을 공동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또 선거기획본부 산하에 실무를 담당할 분과별 부분부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당을 본격적인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 한다는 것은 이제 공천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며, 인재영입이나 공약개발 등 지방선거의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준영지사 “경선을 일관성 있어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5일 전남도청 지방선거 출마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경선은 일관된 틀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헌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한다”고 현행 민주당 규정대로의 경선방식을 주장했다.

이어 “경선에는 경선 틀에 관한 공정성과 돈 쓰는 선거가 아닌 투명성,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3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후보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호남지역 경선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대표성이 문제가 돼 시끄러우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자체를 망칠 수 있다”며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용섭의원 “돈 선거 안 한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광산 을)은 25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준법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정책 선거 등 ‘선거운동 3대 원칙’을 술회할 것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경선 준비에 정통한 ‘선거지킴이’를 임명, 자체적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의 정책을 ‘릴레이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박철현씨 보성군수 출마 선언

박철현(58) 전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25일 민주당 보성연락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성발전을 위한 ‘그랜드 비전’을 만들어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균형을 펼치겠다”며 보성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사장은 “읍·면 사무소에서부터 중앙부처, 광주시, 기업업 사장 등을 두루 거처며 쌓아온 지방행정에 대한 완벽한 노하우를 곁들인 보성을 위해 바치고 싶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월 9일 9시** **공모인** **2월 1일 시작반**

**9시** **오전** **현재 수강예약접수중**

**시대상 시명패턴 변화바람**

**임용고시보교육해정지**

**6월 6일**

»»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

**시대를 위한 교육행정직 합격특강** **9월 문제풀이** **소방직**

**마감유의**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234-0234**